
법인세 개선 건의

2023. 7.

1

법인세율 인하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%로 G7평균 20.9%, OECD평균 21.5%를 상회
 - 미국, 일본, 프랑스, 영국,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은 투자확대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
 - * 최고세율('15년→'21년): OECD평균 23.5 → 21.5, G7평균 25.0 → 20.9, 한국 22.0 → 25.0, 미국 35.0 → 21.0, 일본 23.9 → 23.2, 프랑스 38.0 → 28.4, 영국 20.0 → 19.0, 이탈리아 27.5 → 24.0 (국회예산정책처, 2022년 조세수첩)
 - 한국은 '18년부터 3천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(25%)하고 '23년부터 24%를 부과하고 있어 글로벌 조세 추세에 역행
 - * 법인세법 개정으로 과표구간별 1%씩 인하되었으나 기업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
- 2020년 기준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율*은 OECD 평균 2.7%에 비해 한국은 3.4%로 높은 수준
 - * 캐나다 4.2 일본 3.1 영국 2.3, 프랑스 2.3 이탈리아 2.1 독일 1.7 미국 1.3
-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율 유지는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해외로 자본유출을 심화(순유출(A-B): '17년 220.7억 달러 → '22년 467.2억 달러)하는 등 경제활력 저하 우려
 - * 설비투자지수(통계청) : ('15년) 100.0 ('16년) 101.7 ('17년) 116.4 ('18년: 3천억원 구간 신설) 112.1 ('19년) 105.8 ('20년) 112.0 ('21년) 122.7 ('22년) 126.7
 - ** 해외직접투자(A, 달러) : '17년 450.2억 → '22년 771.7억(321.5억 증가)
 - *** 외국인직접투자(B, 달러, 신고) : '17년 229.5억 → '22년 304.5억(75억 증가)

□ 건의내용

- 주요 선진국의 법인세 인하 추세를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경제활력 제고 필요
 - * (1안) 과표 2억원 이하 5% 2~200억원 이하 10%, 200~3,000억원 이하 15%, 3,000억원 초과 20%
 - (2안) 과표 2억원 이하 5% 2~200억원 이하 15%, 200~3,000억원 이하 17%, 3,000억원 초과 20%

법인세 최고세율 1% 인하시 경제적 효과

	총고정자본형성	취업자 수	GDP
단기	0.46%	0.13%	0.21%
장기	2.56%	0.74%	1.13%

* 김학수, 「새 정부의 법인세율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」, 『한국경제포럼』, 제10권 제3호, 한국경제학회, 2017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법인세 최저한세제도로 인해 기업의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상황
 - * 최저한세율 : 중소기업 7%, 중견 1~3년차 8%, 4~5년차 9%, 그 외 중견·대기업 10~17%
- 최저한세제 적용에 의한 증가세액은 중소기업은 8천만원 수준이 반면, 일반법인(중견·대기업)의 경우 평균 53.3억원으로 조세부담 급증
 - *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「법인세 최저한세제 운용기조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」, '18.2월
- 최저한세제도로 인해 각종 세제지원의 실익 없이 이월공제만 쌓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유인 부족
 - 특히,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최저한세율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R&D 세액공제도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금액이 줄어들고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
- OECD 국가 중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, 헝가리, 룩셈부르크, 오스트리아 4개국에 불과

□ 건의내용

- 중소기업의 최저한세를 폐지하거나 중견기업 최저한세율 인하
 - * (現) 중견기업 1~3년차 8%, 4~5년차 9%, 6년차 이상 10~17% ⇒ (案) 전체 중견기업 8%
- 중견기업의 R&D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
 - *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 R&D세액공제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 제외